

서평

허윤 | 페미니즘 2.0

- 레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2015)
-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현실문화연구, 2015)

페미니즘 2.0

- 레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2015)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땠다구?』(현실문화연구, 2015)

허윤*

남성은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인류의 지적 전통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으며

세계를 조망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과 기존의 언어는 일치한다.

그들은 언어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

- 거다 러너

1. 반발에 대한 반발

2015년은 페미니즘의 해이다. 페미니즘이 싫다며 IS로 간 김군과 ‘무뇌 아적 페미니즘이 IS보다 위험하다’는 한 칼럼리스트의 발언은 한국사회가 성취한(혹은 성취했다고 여겨지는) 양성 평등이 사실상 아직 요원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터넷상에는 된장녀, 김치녀, 맘충에 이르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절할’ 여성들과 반대되는 ‘개념녀’라는 말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이 수많은 신조어의 유행은 한국사회가 여성을 분류, 호명하여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2015년은 페미니즘 백래시 원년쯤으로 불려야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1991년 수잔 팔루디Susan Faludi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경고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70~8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이 거둔 ‘승리’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페미니즘의 탓으로 돌리는 미디어와 함께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혹은 반격은 미국 대중문화를 사로잡았고, 이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¹⁾ 최근의 여성혐오 현상을 보면서, 팔루디의 경고가 생각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성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달리, 데이터는 암울하다. 한국은 교육, 고용,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지수에서 117위를 기록했다.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2014년 여성 고용률은 49.5%, 남성 고용률은 71.4%로 여성이 2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여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는 29.9%에서, 이천년대에 들어 2000년 71.2%, 2005년 79.9%, 2010년 82.6%, 2011년 83.8%, 2012년에는 85.6%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3만 6천 건, 피해자 수는 290명이다.²⁾ 1주일에 1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한 꼴이다. 지표상 한국여성이 남성을 앞서는 것은 대학진학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을 혐오한다.

여성혐오를 커밍아웃한 공론장 덕택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 이어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최근 독립된 사이트로 자리잡은 메갈리아까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일련의 흐름

1) Susan Faludi,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Broadway Books: 15 Anv edition, 2006.

2) 통계청,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범죄 관련 통계는 2013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15년 상반기에는 여러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주목받았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레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2015)와 윤보라, 임옥희, 정희진 등의 글을 모은 『여성혐오가 어쨌다구?』(현실문화연구, 2015)이다. 이 두 권의 책은 2015년 한국사회에서 불고 있는 백래시를 직격한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자.

2. 싸움의 언어를 (되)찾기

메르스갤러리를 중심으로 일련의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를 미러링한다.³⁾ 남성의 수사학을 그대로 묘사하여 성별을 역전시킨 것이다. 메르스갤러리의 사용자들은 반발에 대한 반발로서, 그들의 언어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언어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한다. 남성의 언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카니발로 기능한다. 축제날 왕과 귀족 등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메갈리아’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를 패러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맨스플레인은 맨과 익스플레인을 합한 신조어로, 남자들이 무턱대고 여자들에게 아는 척 설명하려 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의 저자 레베카 솔닛은 맨스플레인을 “남자들은 자꾸 나를,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가르치려 든다. 자기가 무슨 소리를

3) 메르스 발병 초기, 홍콩에서 격리수용을 거부한 관광객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격렬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표방하는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메르스갤러리는 이 여성에 대한 욕을 서슴치 않았다. ‘역시 한국여자들은 이기적이다’류의 비난은, 그들이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이탈한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메르스갤러리를 탈환하여, 남성들의 여성혐오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다.

하는지 알든 모르든. 어떤 남자들은 그렇다”(15)고 개념화하였다. 맨스플레인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졌다. 2010년 뉴욕타임즈가 꼽은 ‘올해의 단어’가 되었으며, 2014년에는 옥스포드 온라인 영어사전에 실리기도 했다. 이는 맨스플레인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레베카 솔닛은 쉽고 명쾌한 에세이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남성중심주의를 고발한다. 이를 설명하는 두 축은 맨스플레인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얼핏 서로 상관 없어 보이는 두 현상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솔닛은 미국에서는 매일 약 3명의 여자가 배우자나 옛 배우자에게 살해당하고, 9초마다 한 번씩 여자가 구타당하며, 배우자의 폭행은 미국 여성의 부상원인 중 첫 번째라고 지적한다. 『남자들은 나를 자꾸 가르치려 든다』의 마지막이 살인과 강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맨스플레인’을 꼽는다. 나서서 말하는 여성이 있을지라도, 그녀의 말은 경청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폭력을 고백할 언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폭력을 증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흠 없는’ 희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언어는 언제나 반박당할 수 있다. 언어는 남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종종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나서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더라도 경청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길거리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에게 이 세상은 당신들의 것이 아님을 넌지시 암시함으로써 여자들을 침묵으로 몰아넣는다.(15)

맨스플레인 세계에 사는 여성들은 말하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 폭력을 고발할 때조차, 여성들의 언어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강화되고 있다. “강간, 데이트 강간, 부부 강간,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 범죄로 규정하려고 애써온 페미

니즘의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우선 여성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19)”라는 솔닛의 지적은 한국사회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메르스궤러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다. ‘안전이별’이라는 것인데, 맞거나 살해당하지 않고 상대와 헤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냉소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남성들은 “그래요, 나는 아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때리진 않았습시다”(49)라고 말한다. 애인이나 아내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을 스토킹하는 남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정당화가 가능한 것은 사회가 너무 맨스플레인화되었기 때문이다. 솔닛은 여성들은 자신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지적이지 않으며, 믿을 만하지 않다고 배워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기 불신은 폭력을 고발하고 제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다. 여자들의 말은 부조리하거나 히스테릭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솔닛은 이러한 여성의 원형으로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를 꼽는다.

그리스 사람들은 예언자인 카산드라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원인은 대단치 않다. 구애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난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도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신뢰성을 잃는 것이 연관된 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던 것이다.”(173) 그후 카산드라는 믿을 수 없는 여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여자들은 언어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 결과, 폭력에도 노출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언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레베카 솔닛의 탁월한 지점은 언어와 세계관, 폭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솔닛은 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을 실각시킨 스캔들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결국 중요한 점은, 어느 가난한 이민자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남성 중 한 명의 경력을 뒤엎었다는 사실이다.”(87) 이를 조금만 바꿔보자. ‘중요한 점은 어느 가난한 이민자 여성의 말이 가장 유력한 남성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는 언어다. 고발하는 언어의 힘을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의 언어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말하는 자, 주체로서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위협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는 이러한 싸움의 언어를 연마한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는 2015년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혐오 발화를 꼼꼼히 기록한다. 시의성을 맞춰 기획한 이 선집은 여성혐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여성혐오로 공론장이 들쭉이는 이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혐오에 관한 담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혐오 발화가 ‘재미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한국사회에서 언어와 성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희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윤보라, 연세대 ‘논지방 사건’을 통해 남성 역차별 담론을 분석하는 시우, 트랜스젠더퀴어, 바이섹슈얼 등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는 루인의 글 등 우리 시대 혐오 담론의 주소를 진단하는 글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설명하는 도구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서문의 당부와 맞아 떨어진다.

메르스갤러리의 언어 문제를 정리한 임옥희의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는 “여성이 자신의 주도권을 위해 폭력과 혐오를 활용한다면, 그 점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 혐오에 ‘희생양 코스프레’가 아니라 혐오로 맞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가?”, “공포, 분노, 애도 등의 정동을 정치적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혐오 자체의 젠더 정치적 용도는 없는가?”, “여성 혐오, 중복 빨갱이 혐오, 외국인 노동자 혐오, 재난 희생자 혐오를 비롯해 온갖 혐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국가장치와 젠더 정치는 어떻게 공모하는가?”(57)라는 질문을 던진다. 메르스갤러리의 미러링이 혐오의 언어를 그대로 되돌림으로써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즉 패러디의 언어가 가진 정치적 힘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주체의 언어를 빼앗아오는 것으로 주체화를 이루고, 그 공포의 정동을 이용하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충격 요법은 분명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충격 요법의

환자들, 미러링한 여성들의 언어를 마주한 남자들과 함께 분석될 때 더욱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웹상에는 과격한 여성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여자지만, 메르스궤러리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김치녀가 아니라 개념녀이다’라는 식의 자기 선언도 그러한 목소리의 일종이다.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구별짓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윤보라의 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윤보라의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하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김치녀’ 담론은 “나쁜 여자”와 ‘착한 여자’라는 판본을 만들어내고 각 사회 주체들을 배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여한 젠더 정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나쁜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참조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다.”(16) 그런데 윤보라가 지적하듯,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을 ‘나쁜 여자’로 만든다. “현재 한국 여자들의 극단적 개념 상실, 이기주의, 공동체 의식 부재, 쾌락과 허영에 환장하고, 남자와 사회공동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만 챙기려는 몰염치가 여성 혐오와 김치녀 사태를 불렀다”는 댓글은 군가산점 논쟁에서부터 반복된 프레임이며, 성별 구도로 소급되고 만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가공을 거친 ‘김치녀’ 자료들이 넘쳐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러한 00녀 현상의 원류를 여성의 정치주체화로부터 찾는 것이다.

사적 존재였던 여성이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 영역의 주체로 부상한 이래, 여성의 주체성을 삭제하려는 작업들이 등장한다.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8%에 지나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었던 것과 같은 해에, 00녀라는 호명이 유행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남성성을 둘러싼 혼란을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타자화로 극복하려는 것”(40)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보라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질문이 의미심장하다. ‘유머’와 ‘드립’이라는 안전한 방패 뒤에 서서 여성들의 항의를 “유머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차단하는 구조 속에서 “왜 웃음이 최종 심급이 되었고, 왜 혐오할 만한 여성들을 강박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하는지”(45) 묻는 것이다. 윤보라의

이러한 질문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진단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베나 오유 등 인터넷 게시판의 주요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웃음’ 코드는 여성 혐오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일베가 한국사회의 악자로 일컬어지는 계층을 무차별적으로 웃음의 대상으로 조롱한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자칭하는 오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유머’라는 게시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웃음은 이제 인터넷상의 가장 큰 권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웃음코드를 전유한 메르스갤러리의 언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갤러리는 ‘메갈문학’이라는 말머리를 통해서 (남초) 사회에서 통용되던 글들을 ‘유머’ 코드로 전유한다. 유사한 내용을 주체의 성별만 바꾸어 전시함으로써, 유머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머의 정치학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세밀하게 전선을 긋는 루인의 글이었다. 루인의 『혐오는 무엇을 하는가』는 비트랜스 페미니즘의 트랜스 혐오, 동성애의 바이 혐오 등 혐오가 체화된 사회를 이야기한다. 혐오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한다는 인식 아래, “혐오 피해자 혹은 혐오의 대상에게 혐오는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루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성/남성의 몸은 하나의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그러나 비트랜스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의 몸을 비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으로 명명하며 여성성을 수행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루인은 이러한 현상이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 규범성, 이성애 제도의 문제를 트랜스젠더퀴어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성애의 복잡한 양상은 삭제되고 이성애는 자연질서로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성애를 체화하고 살아가는 이성애자의 정치적 책임은 비가시화된다.”(196) 루인은 이러한 경향을 ‘성적 지향’이라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으로부터 읽어낸다. 그동안 ‘성적 지향’은 윤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루인은 이에 대해 재질문한다. 성적 지향은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자

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담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와 통한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의 문제는 선택이나 수행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믿음이다. 루인이 관찰한 것처럼, 결혼을 두고 벌어지는 온도 차이는 LGBT/퀴어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바이섹슈얼의 결혼은 이성애 체도에 타협한 것이고, 동성애자의 결혼은 환영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LGBT/퀴어 커뮤니티에 적합한 구성원이 누구인가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의 결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성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여성이 가진 혐오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혐오, 바이섹슈얼에 대한 동성애자, 이성애자의 혐오 등 여성혐오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을 한 권에 담았다는 점에서, 이 기획은 다성적 목소리를 담으려 시도하고 있다. 임옥희의, 윤보라의, 루인의 글이 그랬듯이 이제 페미니즘에게 남은 것은 (되)찾은 언어에 질문을 던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다. 패러디와 유머를 어떻게 정치적 가능성으로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3. 반복되는 맨스플레인을 넘어서

김치녀, 된장녀 등의 수사는 달라졌지만, 지시하는 내용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우리는 계속 여성에 대한 혐오발화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는 신여성 ‘못된꼴’, 1950년대에는 ‘자유부인’이 있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크게 생각해 볼 문제다.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위험인물을 집안에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아내일 동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일단 **배반**

하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내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히 요긴하면서도 **위험 천만한** 인물이기도 하다. 혹은 범의 새끼일는지도 모른다. 쓸어 주고 다듬어 주고 할 때에는 그런대로 좋아하지만, 일단 화를 내면 언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그렇게 날뛰기 시작하면 미처 견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⁴⁾

여자들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흥분해서 스스로 유혹을 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유혹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억울하게도** 죄인 신세가 되는 **어리석은 존재**가 남자일 뿐이다.⁵⁾ (강조는 인용자)

대학교수이자 한글학자인 남편을 두고 옆집 대학생, 사업가 등과 데이트를 즐기는 오선영을 통해 ‘자유’를 섹슈얼리티와 연결시킨 이 소설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공전의 성공을 거두었다. 정비석은 『자유부인』으로 한국문단의 스타로 거듭났으며, 대도시, 중산층, 중등학력 이상의 남성들을 독자로 삼았다.⁶⁾ 그만큼 당대 독자들의 감정구조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자. 여성은 언제나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긴하지만 동시에 위험천만한 존재이다. 여성은 애완동물 이상으로는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성들 자신은 어떤가? 남성을 “억울하게도 죄인 신세가 되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여성혐오와 닮아 있다. 부적절한 여성들에게 배신당한 억울한 남자들, 이러한 수사는 지금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에 맞설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메르스갤러리에 상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과거 촛불소녀였고 ‘배우여자’들이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여성주체들이었다. 이들

4) 정비석, 『자유부인』 상, 정음사, 1954, 63쪽.

5) 정비석, 『자유부인』 상, 정음사, 1954, 75쪽.

6) 이영미,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세계인식과 그 시대적 의미』, 『정비석 연구』, 소명출판, 2013, 9~48쪽.

의 등장이 새롭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역사의 모든 국면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몫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리를 소거하는 방식의 역사에서 여성은 매번 등장할 때마다 '새롭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다. 언어를 되찾고,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의 여성운동과 이들 여성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돌하기도 한다. 여성들 사이의 격차, 혹은 변주는 이제 페미니즘이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역량과 체험이 '여성'운동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출간된 이 두 권의 책은 무척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015년 현재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미니즘 2.0이다.